광주 남구·동구자원봉사센터가 겨울철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이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좌) 동구자원봉사센터도 같은 날 김치 1천300㎏을 담가 독거 어르신 등에 나눴으며 탄소매트 100개도 시설에 전달했다.

"겨울철 소외이웃 반찬 걱정이라도 덜었으면"

●남구·동구자원봉사센터 '김장 나눔'

김치타운서 150여명 김치 5천㎏ 담가 500세대에 전달

복지관·해뜨는식당·독거노인 지원…탄소매트도 배분

"이 김치가 소외이웃의 겨울철 반찬 걱정이라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7일 오전 9시께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은 '2024 사랑애(愛)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로 가득 찼다.

(사)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구와 광주시 지원, (합)을로운수와 푸른솔나눔봉사대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김치를 담가 전달하기 위해 2001년부터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행사는 ▲내빈소개 ▲인사·격려 말씀 ▲김치 담그기 및 포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병내 남구청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김정희 (사)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장, 노소영·신종혁 남구의회 의원과 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개가 넘는 테이블 위에 비닐이 깔리자 봉사자들은 분홍색 위생모와 장갑, 마스크 그리고 빨간 앞치마를 착용한 뒤 김장을 하기 시작했다.

절임배추에 양념을 고루 펴 바르는 손길이 분주했고 테이블 위로 배추와 양념을 옮기는 봉사자들도 속도를 냈다.

양념이 골고루 묻은 김치는 투명한 봉지에 담겨 상자에 포장됐으며, 행사장 한쪽에 차곡차곡 쌓였다.

김장 봉사에 두 번째로 참여했다는 김한종(60)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김치를 전달받은 이들이 올겨울은 물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웃었다.

효덕동에서 온 최장현(62·여)씨는 "독거 어르신들이 직접 김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맛있는 김치를 전해드릴 수 있어 좋다"며 "우리의 정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날 담근 김치 총 500박스(5천㎏)는 17개 동 자원봉사캠프를 통해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됐다.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도 이날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온기나눔 캠페인'을 진행, 김치 1천300㎏을 담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해뜨는식당 ▲자비신행회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행복재활원 ▲사무엘공동생활가정 ▲로뎀의 집 ▲성빈에스더집그룹홈 ▲밝은그룹홈 ▲꿈그림공동생활가정 ▲벧엘의집공동생활가정 ▲열린공동생활가정과 독거 어르신 40세대에 나눴다.

김치 외에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탄소 매트 총 100개를 배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상권 이사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이웃 사랑에 감사하다"며 "연말연시 다양한 나눔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권 센터장은 "경제 위기,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작은 온정이 고난을 이겨내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자원봉사자들과 학수고대 한다"고 밝혔다. /안재영·주성학 기자

광주교대 학생들, 박남기 교수 정년퇴임 축하 기념행사 '눈길'

초등교육과·특수통합교육과 학생회

스승의 은혜 합창·감사글 모음 전달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정년퇴임을 앞둔 스승을 위한 깜짝 기념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28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초등교육과·특수통합교육과 학생회가 다음 해 2월 정년퇴임을 하는 박남기 교육학과 교수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사진〉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은혜 합창, 축하와 아쉬움이 담긴 동영상 시청, 감사의 글 모음 및 선물 전달 등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고마움과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며 "교수로 임명받은 첫날 30여년 후의 퇴임사를 썼는데, 퇴임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년을 앞둔 박남기 교수는 1993년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임명됐으며 광주교대 총장(2008-2012)을 지낸 후 학과로 복귀해 후학 양성에 헌신해왔다. 또 장학금을 포함한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 등을 기부했다. /김다이 기자

민주평통 장성군協, '8·15 통일 독트린'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는 28일 "전날 장성군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심민섭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8·15 통일 독트린 대내외적 구현방안'을 주제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분과위원회별 사업평가 및 활동 계획 발표, 2024년 사업 평가 및 2025년 주요 통일활동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김왕근 협의회장은 "첫눈처럼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선물이 오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한종 군수는 축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성군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며 "군민의 행복과 통일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 '전국국악경연' 입상

담양문화원은 "문화원 문화학교 소속 '박동실제 판소리-열사가학당' 수강생들이 최근 열린 제23회 함평 호남가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각각 신인부 수상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혜씨가 신인부 우수상을, 박봉점·최미진·박미숙·박세연씨가 특별상을 받으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박동실제 판소리-열사가학당'의 지도강사인 권하경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로 2020년 박동실제 '심청가' 한국예술문화명인(제20-10-02-02호)으로 지정됐으며, 제7회 박동진 명창·명고대회에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권 명창은 이화여대 음악박사와 전주교대 대학 및 대학원 강사를 거쳐 현재 담양소리 전수관 및 담양문화원 '열사가학당' 판소리 전승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강성남 담양문화원장은 "이날치·박동실 명창의 고향 담양의 소리가 지역사회에 잘 전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문건설協 전남도회, 옥암동 취약계층 후원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전남도회는 28일 "전날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옥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후원금은 옥고을 꿈드림 장학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꾸러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는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옥암동에 후원금을 기탁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미미 옥암동장은 "건설업계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 감사하다"며 "취약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도, 보성서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

전남도는 28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4년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를 개최했다. 노인돌봄 종사자들은 동절기 한파 속 어르신 안전을 위한 돌봄활동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 주최,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강연,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노인 돌봄 업무에 공로가 큰 종사자 14명에게는 전남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행복한 자기돌봄'이란 주제의 힐링강연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했으며 문화예술공연으로 준비한 마술공연은 종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재정 기자

남도장터, '우체국쇼핑 연도대전' 과기부장관상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28일 '2024 우체국쇼핑 연도대전'에서 공공 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주관한 '우체국쇼핑 연도대전'은 우체국쇼핑과 협업을 통해 지역 우수 상품 판로를 넓혀 농어가·소상공인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관 등을 선정하는 상이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유일한 수상 기관이자 공공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장터는 우체국쇼핑몰 '남도장터 브랜드관' 운영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약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농어민·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소비촉진 기획전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협력업체 부문에서도 농업회사법인 호정식품㈜, 과일꾼, 주식회사 소셜바이오, 화순심은영농조합법인 등 남도장터 입점업체가 대거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 열과 성을 다하는 2천여 남도장터 입점업체 덕분에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며 "입점업체가 경쟁력을 키우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조선대 의대 2회 졸업생들 '발전기금' 기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제2회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5천500만원을 기부했다.

28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의과대학에서 1974년 졸업한 동문들을 초청해 '의과대학 제2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2회 졸업생 30여명이 "의학교육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5천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과 함께 졸업 50주년을 회고하는 사진과 영상 시청, 의과대학 발전 현황 보고, 감사패 증정, 의과대학과 조선대병원 투어 등도 이뤄졌다.

이원구 2회 졸업생 대표는 "1968년 대학에 입학해 교육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며 꿈을 키웠다"며 "50년이 지난 조대 의대는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훌륭한 의사 양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영준 의과대학장은 "선배들의 뜻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에 기부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의학교육실습비와 교육시설 개선, 장학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조선대 의대 1회 졸업동기회가 1억5천여만원을 기부했다. /김다이 기자

결혼

▲송승종(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김복순씨 아들 도헌(광주 북구청 기획실)군, 주남식(전 금호타이어 과장)·이순희씨 딸 민영(광주 북구청 주거통합돌봄과)양=30일(토) 오후 6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진명선·김옥임씨 장남 현호(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군, 박천재·정경자씨 장녀 운형(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양=12월7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메리포엠웨딩홀 지하1층 메이에르홀.